

꺾속 프란치스코회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 **하느님을 향한 인간 정신의 여정**

제 05-08호 2005년 8월 21일 발행

St. Bonaventure Fraternity of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월례회: 매월 셋째 일요일 1:30 PM 반모임: 매월 넷째 일요일 12:30 PM
 장소: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 꺾속 프란치스코 회헌 제16조 ✠

1. (회칙9)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거나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있어 우리의 모범이다. 우리도 성모 마리아 안에서 모든 복음적 덕행들이 실현되었음을 본 프란치스코처럼 지금 이 거룩하신 동정녀에 대한 열성적 사랑, 본받음, 기도와 자녀적 의탁을 키워나갈 것이다. 회원은 교회가 인정하는 양식 안에서 자기 신심을 드러내는 참된 신앙 표현을 취한다.

2. 마리아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풍요롭고 충실한 사랑의 모범이다. 회원과 형제회는 동정 성모를 당신 활동의 안내자로 삼으신 프란치스코의 체험을 본받아 살며, 마리아와 함께 성령강림의 제자들처럼 사랑의 공동체 실현을 위해 성령을 받아들일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 사모 성녀 클라라를 당신 아드님을 뒤따르는 길로 부르신 전능하신 하느님, 성녀의 전구를 들으시어 같은 부르심을 받은 저희가 저희 탓이나 게으름 때문에 이 길에서 벗어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저희의 삶이 성 프란치스코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맞갖도록 저희를 도와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3회의 기원과 역사

이용성(바오로) ofs

3회의 기원:

수도 서원이나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수도자들의 정신에 따라 수도회들의 정신에 따라 크리스찬 완덕을 살고자 하는 단체들이 11세기 초에 생겨났다. 11세기와 12세기에 베네딕도 수도회의 산하에 봉헌된 자들이라는 이름의 단체들이며 이들은 11세기에 클루니 수도원에서 시작된 수도회의 개혁과 더불어 히르사우 수도원도 개혁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이 수도원의 일반인들 가운데 남녀를 위한 일종의 3회가 있었으며, 12세기 초에 노벨트가 창설한 프레몬트레회의 형태가 드러났으나 공식적인 3회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12세기 후반에 등장한 후밀리 아티에서 수도생활을 모방하는 수도회에 독립된 단체인 3회가 후밀리아티의 3회이며, 후에 13세기 탁발 수도회 3회의 선구자가 되었으나 공적으로 교황청의 인준은 받지 못했다.

13세기에 이르러서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따르게 되었으므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이들에게 생활규범을 제시하여 준 것을 이후 교황 호노리오 3세(1216-1227)께서 1221년에 구두로 인준해 준 것이 공적인 3회의 설립의 기원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3회는 사부 성 프란치스코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다양한 3회의 탄생:

3회의 특성을 가진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교황청에서 재속 3회를 15세기부터 인준하여 주었다.

1. **아우구스티노 3회** -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장상의 지도 하에 수도회와 함께 기혼자와 독신자로 구성되어 발전한 신자들의 단체가 아우구스티노 3회로 발전하였다. 여자를 위한회는 보니파시오 9세(1389-1404)에 의해 1400년 11월 7일에 인준되었고, 남자를 위한회는 교황 바오로 2세(1424-1471)에 의해 1470년에 인준되었다.

2. **도미니코 3회** - 1285년에 무니오 총장은 프란치스코 3회의 회칙을 본따서 회칙을 만들었다. 기도와 회개의 부분 등으로 형성된 20장의 회칙으로 3회가 창설되어 1406년에 교황의 인준을 받고 도미니코 3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3. **마리아의 종 수도회의 3회** - 이 3회는 알렉산델 4세께서 1255년에 마리아의 종 수도회와 결합되었다. 3회의 영성은 특별한 봉헌을 통해 비탄의 어머니로부터 양육되는 것이며, 1424년에 인준되었다.

4. **가르멜의 3회** - 가르멜산의 성모마리아의 3회는 가르멜의 총장 요한 소레스에 의해 창설되었고 1452년 교황 니콜라오 5세에 의해 인준되었고 1476년 식스토 4세 교황에 의해 추인되었다.

5. **미넵회의 3회** - 1501년 알렉산델 6세(1492-1503)에 의해 미넵회의 개정된 회칙에 따라 미넵의 3회의 회칙이 인준되었다. 3회의 영성은 회개와 극기의 영성이다. 약 1435년 파울라의 성 프란치스코가 창설한 미넵회의 지도를 받는다.

(2면에 계속)

우리 희망의 표지인 성모 승천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12세가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 받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성모승천이 교회의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다. 성모님의 승천은 초세기부터 신도들이 믿어왔던 믿음을 믿을 도리로 선포한 것이다. 4세기 말에 기록된 신약성서 외경에 ‘성모의 죽음’ 또는 ‘성모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성모님께서 무덤으로 옮겨지던 중 육신이 살아나 승천하였다거나 돌아가신 3일 후에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다.

교회는 3-4세기부터 ‘복되신 동정녀 기념일’에 성모승천을 기념했으며, 5세기 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8월15일에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하는 축일을 지내며 성모승천을 기념했다. 6세기경에 이르러 이 축일의 명칭을 ‘성모 안식 축일’로 변경하여, 성모님께서 하느님 나라에 올림을 받아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기념했고, 8세기부터 그 명칭을 ‘마리아의 승천 축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도 “티없이 깨끗하신 동정녀께서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지상 생활을 마치신 후에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으시어, 주님으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 받으셨다.”(교회헌장 59항)고 성모승천 교리를 교회의 정통 교리로 재확인 하고 있다.

나아가 성모승천은 우리에게 희망의 표지가 된다. 교황 바오로 6세는 1974년 발표한 ‘마리아 공경’에서 성모승천 대축일은 마리아의 완전하심과 복되심, 동정의 몸과 흠 없는 영혼이 누리시는 영광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으심을 기념하는 축제일이라고 말씀 하시면서 이 날은 교회와 전인류에게 바라던 종국적인 희망이 실현됨을 보여주는 축일이라고 설명했다. 성모님께서 영혼과 육신이 승천하셨음을 선포함으로써 부활이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라 현세에 살고 있는 ‘나’라는 온전한 인간의 부활임을 선포한 것이다. 즉 성모승천은 인류구원의 역사가 완성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이다. 따라서 성모승천은 현세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며, 능동적인 삶과 복음화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6. **노벨트회의 3회** - 상파뉴 지방의 세발드가 수도회의 정신을 따르고 좋은 표양을 보여주기 위해 세발드의 요청에 따라 노벨트는 그를 위한 회칙을 작성하였으며, 이 회칙은 오늘날 노벨트의 3회의 준회칙의 원형이며 교황 호노리오 2세(1124-1130)에 의해 1126년에 인준 받았고 후에 1752년 5월에 베네딕도 14세 와 1923년 비오 11세(1922-1939)에 의해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1949년 6월 6일에 비오 12세(1939-1958)로부터 개정되었다.

위에서 언급된 3회들은 사도좌의 인준을 받은 3회이다. 그 후에도 많은 3회가 생겨났으며 오늘날에도 3회가 생겨나고 있고, 교회 내에서 크리스찬 완덕을 추구하는 수도회로 성장하고 있다.

7. **재속 프란치스코회** - 오늘날까지 약 8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재속 프란치스코회가 발전되어 오면서 생활양식의 변화와 함께 명칭도 변화되어 왔다. 재속 프란치스코회는 처음 창설 당시(1209-1221)에 회개의 회 또는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회, 프란치스코 3회, 프란치스코 재속 3회,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의 삶의 터전은 수도원이 아니라 세상임을 드러내준다. 이들은 이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덕을 성취하기로 서약하며 1917년 교회 법전에서는 위의 단체를 일괄적으로 3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3회라는 명칭과 더불어 프란치스코 3회를 재속 프란치스코회라 자칭하고 있으며, 살레시오 3회를 살레시오 협력자회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세기별로 찾아본 3회의 발전 및 변천된 상황:

◎ 14~15세기 : 공동 생활에 대한 열망과 3회의 위기 및 새로운 발전 모습들

초창기부터 공동예배와 3회 회원들은 14세기에 들어 서면서 공동 기도와 형제애를 나누는 작은 공동체를 계획하게 되었다. 베가드회나 베긴회 등이 3회 회칙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다른 공동체에서도 3회 회칙을 준수하는 등 3회 회칙을 따라 살고자하는 신자들이 증가하였다.

이들 공동체의 강력한 움직임은 3회 공동체에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전 유럽을 휩쓴 흑사병과 대립 교황 문제에서 생긴 서양교회의 분열로, 또 당시 이단에 대한 교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3회는 급속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고 3회의 생활 양식이 베가드회나 베긴회 등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혹독한 불신과 박해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3회 회원들은 세상에 살면서 수도회적 생활을 살면서 사회 공동체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브레스키아의 회원들은 자비의 집을 운영하였고 이몰다와 다른 곳에서는 여행자 숙소를 설립하여 원장을 임명하고 종사하였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3회의 의무가 되었다. 이외에도 몬스에서는 무료로 어린이들을 교육시켰다. 그리고 매춘부 요양소를 만들어 경영하는 등 자비로운 활동으로 서민들에게는 신뢰를, 귀족들에게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완덕에 이르도록 영향을 미쳤으며 25명이나 되는 회원들이 성인품에 오르는 영광을 입게 되었다.

(3면에 계속)

완벽

- 이제민 신부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은 남이 잘못된
것을 그냥 보아 넘기지 못한다.
완벽을 추구하는 자 일수록 남의
잘못과 흠에 관심을 쏟는다.
그들은 끊임없이 남의 흠을 지적하지만
그것은 흠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들추어내기 위해서이며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흠까지를 찾아낸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행위는
하느님의 최대 흠이 된다.
그것은 악을 조장하는 행위요 불의를 눈감아
주는 행위이다.
완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햇빛을 주시는 하느님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기에
그들은 남의 아픔을, 불행, 잘못을
이해하지 못한다.

홀로 '정의로운' 존재로서 불행 안에서
행복을,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을 보지
못하고 끝내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로 머문다.

그 정의로운 인간은 다윗처럼 기도할 수 없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사오며 내 죄 항상 내
앞에 있삽나이다."(시편 51, 5)

마음의 눈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리며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완전한 자 되어라. 너희 하느님처럼."

인간의 완벽을 넘어 하느님처럼 완전한 자
되어라.

완전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주를 감싸 안을 수 있을 것이다.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푸근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 16~17세기: 쇠퇴와 새로운 도약

르네상스 운동으로 사람들은 신 중심 사고에서 인간 중심 사고로 변화되어 갔으며 더구나 국가주의를 등에 업고 발전한 프로테스탄 개혁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나라에서 3회는 심각한 쇠퇴 현상이 일어났다. 17세기에 이르러 작은형제회의 지대한 노력과 프로테스탄의 쇠퇴로 3회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었다.

교황들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한 방법으로 3회원들에게 영적인 호의와 추천을 베풀었다. 이태리에서는 교회의 상류층 사람들이 3회에 속해있다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으며 리스본 지역에 형제회는 1644년에 11,000명, 마드리드 지방 형제회는 1685년에 25,000명의 회원이 있었다. 16~17세기 의 성인 성녀들은 로울라의 이나시오, 성 까에다노, 성 필립보 네리, 성 가밀로, 성 요셉 칼라상시오,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 상딸의 성녀 요안나, 성녀 안젤라, 메리치 등이 3회 회원이었으며 일본의 박해시대 순교자들 성인 17명 복자 30명이 진정한 3회 회원의 삶을 살다 순교하였다.

◎ 18~19세기: 박해와 교황 레오 13세의 새 회칙 발표

18세기 후반기부터 3회는 시련을 겪게 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제국주의로부터 시작된 시련은 1776년 3회 입회를 금지하였으며 1782년 요셉 2세는 요셉주의 또는 왕권 보호주의를 내세워 3회 폐지령을 내렸고, 프랑스 정부는 1790년 3회와 모든 수도회를 폐지시켰고, 수도회 재산을 국유화 하였다. 스페인과 이태리에서도 수도회를 폐지시켜 3회 회원들은 법적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러나 박해로 인해 수도원에서 내몰린 수도자들의 지도를 받

며 3회는 활기를 되찾게 되었고, 움세르반데스와 카푸친의 도움으로 다시 조직을 정비할 수 있었으며, 교황 레오 13세는 사회주의의 대우로 인한 사회적 혼란기에 새로운 개혁이 요구되었으며 1882년 성 프란치스코 탄생 700주년을 맞이하여 아우스 피카로 콘세시움을 발표하여 전세계 카톨릭 신자들이 3회에 입회할 것을 고하였다. 교황은 당시 교회와 사회의 악에 대한 복음의 모델로서 프란치스코를 내세웠던 것이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1883년 5월 30일에 미세르 이코로스 데이 웨일우스의 칙서로 레오 13세 교황을 회칙을 발표하였다.

◎ 20세기의 3회 발전 모습: 변화의 물결

레오 13세의 영향으로 3회원 수는 전세계에 몇 백만이나 되었고 그 후임 교황님들도 3회 회원이었기에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가톨릭 운동인 사도직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데 교황 비오 11세는 가톨릭 운동을 레오 13세가 3회를 지지하는 이상으로 지지했다. 교황의 의도는 아니지만 이 가톨릭 운동의 영향으로 3회는 한때 쇠퇴를 가져왔으나 비오 11세 역시 3회원이었으며 프란치스코를 주보 성인으로 하였으며, 1942년 1회의 수도회 가족들은 새로운 회헌을 준비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하고 1957년 새 회헌이 공포되었다.

현재에는 바오로 6세 교황께서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이룩된 교회 쇄신의 관점에서 1978년 6월 24일 'Seraphicus Patriarcha' 칙서로 개정된 회칙을 주셨고, 2001년 새 회헌이 반포됨으로써 완전한 체제를 잡게 되었다. ■

보나벤투라 형제회 소식난

✦ 7월17일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하여 우리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첫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뉴욕형제회 회장 부부 참석: 종신서약자들에게 서약 배지와 상분 선물
- 와싱턴 글라라회의 김호경 회장님을 비롯 10명 참석: 입회자와 서약자를 위해 각각 미사를 봉헌
- 지구형제회의 구역장인 Ralph 형제 참석
- 트라이앵글 성당의 책임자 1명과 그곳 형제회원 3명이 참석

✦ 서약식때 음식담당하여 주신 콰로사, 김아가다 자매와 음식을 해 오신분들, 음악봉사하여 주신분등 서약식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7월24일에 구역모임이 있었습니다. 만약 구역모임에 참석하실수 없을 경우 구역서기인 김운옥 마리아 자매께 (703-222-1333) 월례회에 참석하시지 못할 경우 부회장 이아모스 형제께(703-509-1388)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7월30일 조은자 마리아 자매택에서 글라라 자매와 함께 입회자 보충수업이 있었습니다.

✦ 8월1일 토요일 1시부터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김병두 신부님을 모시고 양성보조 교육이 있었습니다.

✦ 8월10일 캐나다의 김충욱 비오 신부님이 오셔서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저녁 7시 저녁식사와 미사가 있었습니다.

✦ 9월3일 토요일 12시부터 3시까지 한테레사 자매택에서 양성보조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 8월 월례회에 처음 오신 지원자 형제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기도 중 기억합시다 . . .

- ✦ 8월 25-28일 캐나다 연수회의 참석자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 ✦ 보나벤투라 형제회의 모든 가족들 특히 사부 성인의 영성을 따라 살고싶은 마음에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을 위해 ...



- 이월금: \$976.79
- 수입: \$78.00
- 지출: \$537.33
- 잔액: \$517.46

8월 월례회 시간표

- 1:00 PM - 다과 1:30 PM - 양성 교육
- 3:00 PM - 미사
- 3:40 PM - 친교, 회비/후원회비 납부
- 4:00 PM - 월례회

✦ 미사 성가: 지침서 ✦

- 입당: 16번 주 하느님 크시도다
- 봉헌: 35번 새로운 계명
- 성체: 44번 주여 임하소서
- 마침: 53번 주 예수 따르기로

신자들의 기도: 윤태순, 조은자, 고경애, 조봉순

✦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 8월11일: 김준호 클라라, 고경애 클라라 최경분 클라라
- 8월12일: 윤태순 요안나
- 8월15일: 송정임 마리아, 김미경 마리아 강수연 마리아



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속 프란치스코 버지니아 성 보나벤투라 준비회

회장: 한기남 703-425-9445 man5ki@yahoo.co.kr
부회장: 이장훈 703-497-0069
서기: 김미경 703-680-0274 talmadge01@msn.com

회계: 조순우 703-759-9429 swcsfo@yahoo.com
양성: 조은자 703-250-1658 chosonyoo@hanmail.net
영적보조: 김병두 신부 O.F.M. berdiofm@hanmail.net